

서 평

날으는 스코틀랜드인

샬리 매그너슨 지음 / 이 미준 옮김
개혁주의신행협회 발행 / 214면 / 2,500원

심 군 식

(목사 · 아동문학가)

88년 올림픽 해를 당하여 뜻있는 책이 출판된 것을 기뻐한다. 「날으는 스코틀랜드인」은 신앙의 스포츠맨인 에릭 헨리 리델 선교사의 전기이다.

1924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8 회 세계 올림픽 대회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엘릭은 중국에 선교사로 간 제임스 리델 목사의 아들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는 금메달을 획득할 자신이 있는 100m 경주가 주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전 영국인의 기대를 거부하고 출전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400m 경기는 자신이 없었지만 주일이 아니었기에 출전하여 놀랍게도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올림픽 영웅 에릭 리델은 1902년 1월 16일 중국에서 제임스 던롭프 리델 목사와 간호원인 메리 렌던 여사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에릭은 6살 때, 부친의 안식년으로 가족과 함께 본국인 스코틀랜드에 왔

다. 1년 후(1908) 부친이 중국 선교지로 떠날 때 엘릭은 형 룽과 같이 그 대로 남았고 스코틀랜드에서 교육을 받았다.

형 룽은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에 들어갔고 에릭은 같은 대학 과학과에서 공부하였다.

1924년 7월 에릭은 22세의 에린버러 대학생으로 올림픽 4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땀다. 그는 승리한 날 승리 파티에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 경기장을 빠져나와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올린 것이다.

형 룽이 의학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의료 선교사로 중국으로 떠나자 에릭은 졸업 후 신학을 하기 위하여 종합 대학 신학과에 등록하였다.

1년 후(1925) 중국으로 갔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선교 일에 뛰어들었다. 티엔친에 있는 런던 선교 협회가 운영하는 영중 대학에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학생은 500명 정도이고 영국인 직원 5명, 중국인 직원 25명이었다. 에릭은 화학과 순수 과학을 가르쳤다. 체육 경기 지도도 하였다.

에릭의 부친은 1929년에 선교지에서 은퇴하여 스코틀랜드에 돌아갔고 에릭은 1931년에 안식년을 맞아 에딘버러에 돌아왔다.

1932년 6월에 엘릭은 종합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 티엔친으로 돌아왔다. 대학에서 사무관 경기위원장, 종교 담당 책임자로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1934년 3월 27일 티엔친 합동 교회

에서 플로렌스 맥켄지 양과 결혼식을 올렸다. 플로렌스양은 캐나다에서 온 휴 맥켄지 선교사의 딸이었다.

결혼 후 연년생으로 두 딸이 출생하였고 1937년에 에릭 선교사는 가족을 떠나 샤오창으로 선교지를 옮겨 농촌 사역에 종사하였다.

일본의 침략이 강하게 날아와 나라안은 전쟁 중이었다. 본국에서는 소환을 명령하였지만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1934년 3월 에릭은 일본의 적대국 출신 사람들과 함께 북경 남쪽 웨이셴 수용소에 끌려갔다. 노동과 적은 급식으로 몸은 쇠약해 갔고, 1945년 1월 심한 영양 실조와 정맥동염, 그리고 인플루엔자에 걸려 고통하다가 2월 21일, 향년 43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남긴 말은 "완전한 행복이야"였다.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항복시켰다는 뜻이다.

이상은 본서 주인공의 생애에 대한 줄거리를 대충 소개했거니와 우리가 한 인간의 삶을 더듬을 때 그 삶이 누구나 존경스럽고, 흠모할 만하며, 추종하고 싶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생애가 길든 짧든 간에 귀하고 값진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에릭 리델은 강인하고 억척스런 인간 승리에의 투지력의 정점이랄 수 있는 올림픽 경기의 금메달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교리-주일 성수)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초개같이 버릴 줄 아는 신앙에의 결단력을 가진, 아니 선교사로서의 불타는 사명감으로 하여금 스포츠로 인한 모든 영광도 포기한 신앙의 위인이며, 그는 또한 신앙으로 높이 승화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인격자! 우리가 목마르게 바라고 찾는 인간(성도)상, 지도자상을 이 책에서 만나 보는 것 같다.

[書評]

Eternal Word and Changing Worlds: Theology, Anthropology, and Mission in Trialogue

(영원한 말씀과 변하는 세계 : 신학, 인류학, 선교의 삼각 관계)

by Harvie M. Conn

(Grand Rapids : Zondervan House Pub., 1984)

전 호 진 (고신대학장)

본서는 책명과 같이 신학과 문화 인류학과 선교의 삼각 관계를 잘 다룬, 선교학도에게 필수적인 책이다. 본서의 내용은 3부로 되어 있는데 제 1부는 과거 서구 신학에서 문화 인류학과 신학의 관계를, 제 2부는 현재 복음주의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문화 인류학에 대한 관심과 신학의 상황화

문제를, 제 3부는 미래 선교지에서의 신학의 방향 문제를 취급하였다.

본서 제 1부는 18세기 서구 문화 인류학이 발전하면서 비서구 세계의 문화, 종교, 신화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철학에 근거, 이성을 종교, 심지어 기독교의 계시 위에 두었다. 문화와 종교를 발전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비서구 문화와 종교는 이성이 발전하지 못한 문화의 초보 단계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합리주의는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끼쳐 기독교 종교를 단순한 종교인 물질론에서 다신론을 거쳐 일신론으로 발전한 것으로 해석한다. 합리주의적인 발전론 사상은 성경 비평주의에 큰 영향을 준다. 비서구 문화를 합리성의 결여인, 일종의 야만으로 보는 태도는 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쳐 서구 선교사들은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문명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였다.

윌리엄 케리도 인도에 갈 때 인도는 법도, 정부도, 과학도, 예술도 없는 것으로 알았다. 저자는 이러한 서구의 사고 방식을 '의식1'이라고 부르고, 다음 단계에서 비서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선교에 적용하려는 자세를 '의식2'로 표현한다. '의식2'는 비서구 문화에 대해 비교적 이해의 자세를 가지지만 서구 우월감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서구 우월감 때문에 자립, 자치, 자력 전파의 소위 토착 원리는 서구 교회로부터 많은

도전과 반대를 받는다.

제 2부에서는 현대 복음주의 진영에서 문화 인류학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접근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신학의 상황화 문제를 다루는데 저자는 이것을 '의식3'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서구 신학자이면서도 과거 서구 신학이 선교지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서구 신학을 이식하는 데 대해 반대를 제기하며 나아가 또한 선교지 교회가 서구 신학을 이식하는 데 대해 반대를 제기하며 나아가 또한 선교지 교회가 서구 신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한국 교회도 이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한국 교회도 신학의 상황화가 절실히 요망된다는 사실을 본장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신학의 상황화를 시도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혼합주의의 위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복음주의는 과도한 토착화는 피하면서도 복음을 상황에 잘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3부는 미래 신학의 방향을 논하고 제 3세계에서 신학 교육의 문제를 다룬다. 21세기는 비서구 교회가 서구보다 양적으로 더 강하여지는, 소위 교회 세력의 이전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서구 중심의 신학도 자연 비서구 중심의 신학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서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비서구 문화에 이식될 때는 비서구의 상황적 위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서구의 종류 계급이 비서구의 가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가난과 억압을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 비서구는 행동의 신학(doing Theology)이 불가피하다. 남미의 해방 신학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상황 위주인 데 문제가 있다. 비서구에서 신학화의 작업은 신학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재고되어야 한다. 서구 신학 교육은 헬라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목회의 우월성을 학문에만 두고 실천 능력과 인격은 배제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서구의 문화를 신학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세계관과 신화 문제를 다루며 문

화 인류학이 또한 상대주의로 떨어지는 문제점도 언급한다.

본서는 신학과 문화 인류학을 학문적으로 통합하는 데 방법과 문제점을 잘 제시하였기 때문에 선교학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학도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책이다. 신학의 주체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신학적 상대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한국 교회는 본서를 통하여 많은 자극과 도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 본지 (「개혁 신앙」) 정기 구독 안내 ***

- 연간 계절따라 4회 발간
- 구독료 : 1년 2,000원 (1부는 600원 - 날권은 가급적 기독교 서점에서 직접 구입 요망)
- 송금 방법 : 온라인 { 조흥은행 359-6-009858
 우체국 010033-0028944
- 연락 주소 : 120-013 서울·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
 ☎312-6758·392-4716 개혁주의신행협회

※송금과 동시 주소, 성명, 금액, 송금 일자, 온라인 편(조흥, 우체국 구분)을 엽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신청도 환영)